

유아 전통 놀이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The Educational Application of Children's Traditional Play in the Kindergarten Setting

신동주**

Shin, Dong Ju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kindergarten teachers apply children's traditional play to educational curriculum and how kindergarten children engaged in traditional pla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0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ir 2930 5-year-old kindergarten children.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teachers included children's traditional play in educational curriculum as indoor and outdoor play activities, but they had difficulties in this process by lack of play materials and their knowledge of children's traditional play.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kindergarten children played "Yut" most frequently and, in most cases, they engaged in traditional play in ways which were adjusted to their developmental level and life style.

I. 서론

전통놀이란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행해지면서 민간에 의해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로서, 이를 보존하고 이어가는 것은 조상의 열과 지혜를 배우고 그 사회집단의 독특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순한 생물적 창조물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존재인 유아들에게 현재 그들의 삶과 조화를 이룬 형태의 유아 전통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와 태도를 오늘의 삶 속에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는 세시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개인놀이보다는 집단놀이의 형태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농경이 경제적 생존수단이었던 우리 민족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 농경민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농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자연현상에 깊은 경외심을 가졌으며, 전통놀이 또한 농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제천의식이 놀이의 형태로 발전된 것이었다. 또한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농경생활을 위주로 한 세시풍속은 협동성을 중요시했으므로 우리 조상들은 놀이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기르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놀이가 재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생산·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어져 더욱 효율적인 재생산을 위한 의식의 통일과 그의 승화를 위한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고려대학교, 1980; 교육부, 1993; 김선풍, 1996; 심우성, 1997).

특히 유아기 아동을 위한 우리나라 전통놀이는 위와 같은 농경의례나 그와 관련된 세시풍속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양식과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육아법과 양육태도를 함축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란다’는 말에는 놀이가 단순히 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유아를 위한 전통놀이의 내용 속에는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발달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교육부, 1993; 유안진, 1981).

그러나 우리의 유아 전통놀이가 우리 민족 고유의 삶에 대한 철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아들의 삶 속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제 침략에서 우리의 민족 문화가 말살 당했던 데에 일차적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른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적인 것이 곧 근대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고유의 것을 경시하고 거부했던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 1993).

특히 요즈음 들어서는 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의 고유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외래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 이에 흡수, 동화되려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유아들이 전통놀이에

흥미를 갖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 전통놀이를 현재 유아의 삶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발전시켜 제시하려는 노력의 부족과 더불어 오늘날 유아 전통놀이를 도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유아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 겨레 고유의 민족 정서를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김경희(1986), 이기현(1987), 이은화(1989) 등에 의해 1980년대부터 전통놀이를 유아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1993년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통놀이 10가지를 선정하여 이를 교육 활동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룬 ‘유아 전통놀이 교육활동 지도자료’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아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어떻게 포함시키고 있으며,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갈 유아들이 현재 어떤 유아 전통놀이를 즐겨 하고 있으며, 실제 놀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들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조사된 것이 없다.

따라서 유아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놀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유아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전통놀이에 대해 갖는 관심과 이를 교육과정에 실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현재 유아들에 의해 즐겨 행해지고 있는 전통

놀이는 무엇이며 이를 놀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과 실제 적용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현재 유아들이 즐겨 행하고 있는 유아 전통놀이는 무엇이며, 이를 놀이를 하는 장소 및 시기는 어떠하며, 누구에게서 놀이방법을 배우는가?

연구 문제 4. 현재 유아들이 실행하고 있는 유아 전통놀이 방법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들의 유아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과 교육과정에의 실제 적용 실태 및 현재 유아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 유아 전통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교사들과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전국 각 지역별로(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20개씩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무선표집하였으며, 각 유치원의 만 5세반 교사 한 명(총 120명)과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유아 총 2930명(남아:1523명, 여아:140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유치원의 규모가 작아 혼합 연령으로 한 학급만 운영될 경우 만 5세 유아만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2. 연구도구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도구 및 연구절차를 사용하였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과 실제 적용 실태 및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각 지역별로(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20명씩 무선표집한 총 120명의 교사들에게 개별 전화면담을 통하여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면담이나 직접면담을 통하여 설문지의 답변내용을 보충하였다.

둘째, 유아들을 대상으로 현재 그들이 즐겨 행하고 있는 유아 전통놀이는 무엇이며, 이를 놀이를 하는 장소 및 시기는 어떠하며, 누구에게서 놀이방법을 배우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구('이야기 나누기 그림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현재 유아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유아를 위한 전통놀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의 약 10%에 속하는 500명의 교사를 비례적 충하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관련 문헌에서 유아를 위한 전통놀이로 분류되어진 총 40가지의 놀이 중 현재 유아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거나 유아를 위한 전통놀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놀이를 선택하도록 설문 조사하였다. 355명(71%)의 교사들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에 의해 유아 전통놀이로 선정되어진 10가지 놀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그림자료와 연구문제와 관련된 질문지를 만들었다. 선정된

10가지 놀이는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구슬치기, 연날리기, 비석치기, 줄넘기, 깨금발싸움이었다. 이야기 나누기 그림자료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는 유아 전통놀이로 선정되어진 10가지 놀이의 놀이 모습이 하나씩 그려져 있다. 질문지는 I 과 II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 I에서는 교사들이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과 실제 적용실태 및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총 10문항). 질문지 II에서는 현재 유아들이 즐겨 행하고 있는 전통놀이는 무엇이며, 각 전통놀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들이 연구자가 개발한 이야기 나누기 그림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음 답하도록 하였다(총 50문항). 응답의 형태는 자유응답형과 다지선다형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다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개발한 이야기 나누기 그림자료와 질문지는 각 지역별로 20명씩 선정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어졌으며, 교사들은 이야기 나누기 그림자료를 이용한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들의 전통놀이 실행 실태를 파악한 후 질문지에 답변하였다. 위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들이 각 지역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그 지역 유아들의 전통놀이 실행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관찰함으로써 유아 전통놀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3. 자료처리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했으며, 한 문항에 여러 개의 응답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목별로 빈도와 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현재 유아들이 실행하고 있는 유아 전통놀이 방법은 교사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이나 직접 현장에서 관찰한 것을 기초로 질문지에 자유응답형으로 기술한 것을 종합·정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 전통놀이의 중요성 및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실태

유아 전통놀이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지역에서 20명씩 무선표집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120명 모두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의 (표 1)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유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의 전통놀이는 협동놀이가 많아 이를 놀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으므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14명(95%)의 교사가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 또는 ‘명절’ 등과 같은 단원을 전개할 때 실내·외 놀이활동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또한 주 1회나 월 2회 등 정기적으로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일

상적으로 자유선택활동에 포함시켜 제시하는 경우에도, 전통놀이와 관련된 단원이 전개될 때는

더욱 강조하여 활발하게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되는 이유

N = 120

구 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합계(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11	13	16	16	18	15	89(74%)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13	7	9	11	13	10	63(53%)
사회생활을 돋기위해(협동놀이가 많아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다)	3	8	5	3	4	9	32(27%)
정서발달(심성발달)을 돋기위해	2	3	•	6	3	6	20(17%)
인지발달을 돋기위해	2	1	3	•	1	12	19(16%)
신체발달을 돋기위해	3	3	1	1	1	9	18(15%)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	•	2	•	2	•	4(3 %)
기타	•	•	1	2	3	•	6(5 %)

비고: 중다반응이 가능하므로 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함

〈표 2〉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시기 및 방법

N = 114

구 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합계(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
단원 중심(우리나라/명절 등)	11	13	9	16	16	15	80(70%)
언 정기적으로(주 1회/월 2회 등)	3	8	5	3	8	6	33(29%)
제 일상적으로(자유선택활동 등)	8	•	3	9	6	3	29(25%)
행사때(운동회/소풍/어린이날 등)	2	3	•	3	2	3	13(11%)
어떤 식으로 실내외 놀이활동 중심	15	10	13	9	10	15	72(63%)
이야기나누기 + 실내외 놀이활동	5	8	4	10	10	5	42(37%)
행사/ 견학시 부모와 함께 실시	3	•	2	•	•	6	11(10%)

비고: 중다반응이 가능하므로 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함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교사(6명)의 경우 전통놀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이를 실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유아 전통놀이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미흡하고, 전통놀이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부족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 대부분의

교사가 느끼는 어려운 점과 일치하고 있다.

2.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

유아 전통놀이를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해 교사들은 다음의 〈표 3〉와 같이 답하고 있다.

〈표 3〉 유아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

N=120

구 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합계(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
자료보급 미흡/정선된 자료 부족	13	7	8	8	14	9	59(49%)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맞지 않음	3	12	7	12	10	15	59(49%)
교사의 지식 부족	16	5	14	8	5	3	51(43%)
교사:아동의 비율이 높음	3	•	1	•	3	•	7(6%)
유아들이 전통놀이에 익숙지 않음	•	3	4	•	•	•	7(6%)
가정과의 협조가 안됨	•	•	•	1	•	•	1(1%)

비고: 중다반응이 가능하므로 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함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교사들이 유아 전통놀이를 현장에서 실시함에 있어 관련 자료의 부족과 전통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 부족을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으며, 유아 전통놀이라고 알려진 놀이들이 현재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유아 전통놀이와 관련하여 교사 재교육을 실시

하는 것에 대해 연구 대상 교사들의 약 96% (115명)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방학 중 일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실시하는 것을 원하였다(표4 참조). 또한 재교육의 방법으로는 유아 전통놀이의 유래, 특징, 교육과정에의 적용방법에 대한 이론강의와 실제로 전통놀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고 이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워크샵을 병행하는 것을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하였다.

〈표 4〉 유아전통놀이에 대한 재교육 실시 시기 및 기간

N=115

구 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합계(비율)
1-2일	•	5	2	3	1	9	20(17%)
3-4일	8	7	10	10	13	8	56(49%)
방학중	5-6일	2	5	1	2	1	•
일주일	5	•	5	2	3	•	15(13%)
	8일 이상	3	1	1	3	1	•
월 1회	2	•	•	•	•	•	2(2%)
기 타	•	•	1	•	1	•	2(2%)

3. 유아들의 전통놀이 실행 실태

유아들이 즐겨 행하고 있는 유아 전통놀이는

무엇이며, 이를 놀이를 하는 장소 및 시기는 어떠하며, 누구에게서 놀이방법을 배우는지에 대해 예비 조사에서 유아를 위한 전통놀이로 선정되어진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구슬치기, 연날리기, 비석치기, 줄넘기, 깨금발싸움 등 10가지 놀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국 각 지역별로 20개씩 무선표집된 총 120 학급의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 5세 유아들의

수는 2930명이었으며, 이들 중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구슬치기, 연날리기, 비석치기, 줄넘기, 깨금발싸움 등 10가지 놀이를 해 본 유아의 수 및 비율을 각 지역별로 살펴본 것은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 전통놀이를 해 본 유아의 수 및 비율

구 분	서울·경기 (N=611)	강 원 (N=461)	충 청 (N=472)	영 남 (N=427)	호 남 (N=433)	제 주 (N=526)	합 계 (N=2930)
윷놀이	459(75%)	357(77%)	358(76%)	285(67%)	318(73%)	371(71%)	2148(73%)
깨금발싸움	314(51%)	235(51%)	323(68%)	263(62%)	420(97%)	443(84%)	1998(68%)
딱지치기	387(63%)	331(72%)	332(70%)	242(57%)	299(69%)	386(73%)	1977(67%)
줄넘기	300(50%)	351(76%)	249(53%)	302(71%)	284(66%)	323(61%)	1809(62%)
공기놀이	190(31%)	235(51%)	243(51%)	237(56%)	206(48%)	386(73%)	1497(51%)
제기차기	205(34%)	269(58%)	179(40%)	205(48%)	238(55%)	291(55%)	1387(47%)
팽이치기	265(43%)	160(35%)	166(35%)	189(44%)	183(42%)	317(60%)	1280(44%)
구슬치기	247(40%)	170(37%)	153(32%)	156(37%)	230(53%)	311(59%)	1267(43%)
연날리기	225(37%)	182(39%)	170(36%)	192(45%)	186(43%)	251(48%)	1206(41%)
비석치기	168(27%)	162(35%)	110(23%)	88(21%)	167(39%)	280(53%)	975(33%)

비고: 팔호 안의 %는 각 지역별 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유아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전통놀이는 윷놀이이며, 깨금발싸움, 딱지치기, 줄넘기, 공기놀이 등은 연구 대상 유아들의 50% 이상이 실제로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강원, 충청지방에서는 윷놀이가, 호남, 제주지방에서는 깨금발싸움이, 그리고 영남지방에서는 줄넘기가 유아들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실시되어 전통놀이로 나타나고 있다.

유아들이 전통놀이를 해 본 곳을 가정(집 또는 동네)과 유치원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윷놀이, 줄넘기, 제기차기의 경우에는 가정과 유치원에서 모두 50% 이상의 유아들이 놀이를 해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딱지치기, 공기

놀이, 팽이치기, 구슬치기, 연날리기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깨금발싸움과 비석치기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더 자주 행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표 6)과 같은 현상은 유아들이 누구에게서 전통놀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표 7)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깨금발싸움과 비석치기의 경우 대다수의 유아들이 가족이나 친구보다는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놀이방법을 배웠으므로 가정에서보다는 유치원에서 이를 놀이를 더 자주 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에서 더 자주 행해진 것으로 조사된

딱지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구슬치기, 연날리기의 경우에는 많은 유아들이 형제나 자매로부터 놀이방법을 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히 유아들이 집이나 동네에서 이들 놀이를 즐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윷놀이*의 경우에는 많은 유아들이 가족으로부터

놀이방법을 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치원에 교육부에서 제공한 유아를 위한 *윷놀이* 도구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유치원에서도 이 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표 7 참조).

〈表 6〉 유아들이 전통놀이를 해 본 곳

구 분	윷놀이 (N=2148)	개금발싸움 (N=1998)	딱지치기 (N=1977)	줄넘기 (N=1809)	공기놀이 (N=1497)	제기차기 (N=1387)	팽이치기 (N=1280)	구슬치기 (N=1267)	연날리기 (N=1206)	비석치기 (N=975)
집 또는 동네	1219 (57%)	561 (28%)	1340 (68%)	1013 (56%)	893 (60%)	709 (51%)	882 (69%)	873 (69%)	850 (70%)	359 (37%)
유치원	1100 (51%)	1414 (71%)	687 (35%)	1097 (61%)	637 (43%)	713 (51%)	348 (27%)	405 (32%)	250 (21%)	606 (62%)
기타	123 (6%)	148 (7%)	130 (7%)	45 (2%)	114 (10%)	73 (5%)	99 (8%)	103 (8%)	147 (12%)	53 (5%)
장소										

비고:괄호 안의 %는 각 놀이별 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表 7〉 유아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쳐 준 사람

구 분	윷놀이 (N=2148)	개금발싸움 (N=1998)	딱지치기 (N=1977)	줄넘기 (N=1809)	공기놀이 (N=1497)	제기차기 (N=1387)	팽이치기 (N=1280)	구슬치기 (N=1267)	연날리기 (N=1206)	비석치기 (N=975)
부모	895 (42%)	181 (9%)	259 (13%)	463 (26%)	221 (15%)	316 (23%)	308 (24%)	167 (13%)	378 (31%)	81 (8%)
조부모 ·	370 (17%)	66 (3%)	66 (3%)	42 (2%)	43 (3%)	94 (7%)	106 (8%)	84 (7%)	229 (19%)	58 (6%)
친척어른	221 (10%)	486 (24%)	780 (39%)	475 (26%)	616 (41%)	414 (30%)	526 (41%)	603 (48%)	365 (30%)	270 (28%)
친구	53 (2%)	165 (8%)	490 (25%)	100 (6%)	152 (10%)	112 (8%)	121 (9%)	119 (9%)	31 (3%)	25 (3%)
유치원	696 (32%)	1106 (55%)	313 (16%)	934 (52%)	449 (30%)	570 (41%)	191 (15%)	271 (21%)	203 (17%)	537 (55%)
선생님	32 (1%)	41 (2%)	99 (5%)	52 (3%)	66 (4%)	41 (3%)	73 (6%)	78 (6%)	47 (4%)	43 (4%)
기타										

비고:괄호 안의 %는 각 놀이별 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유아들이 전통놀이를 하는 때를 살펴보면, 세시 풍속과 관련된 명절놀이였던 옻놀이와 연날리기의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가정에서는 설날을 전후 한 시기에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에서는 ‘우리나라’ 또는 ‘명절’ 등과 같은 관련 단원을 전개할 때 자유선택활동의 일환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추석이나 대보름 등과 같은 명절이나 어른들의 생신 또는 제삿날 등과 같이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 가정에서 옻놀이를 즐겨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아들은 깨금발싸움, 딱지치기, 줄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구슬치기, 비석치기의 경우 어떤 특정한 때보다는 평소에 수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에서는 실내·외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팽이치기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때보다는 평소에 ‘놀이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겨울에 설날을 전후하여 땅이 얼었을 때 더 자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운동회 등과 같은 행사때에 옻놀이, 줄넘기, 제기차기, 깨금발싸움 등을 부모님과 유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아들이 가정에서 줄넘기를 할 때에는 순수한 오락을 위한 목적보다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주로 체력단련을 위해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유아들의 전통놀이 실행방법

현재 유아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전통놀이의 방법을 연구대상 놀이 10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놀이 방법과는 다르게 행해지고 있었으나,

정보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사회문화적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놀이 방법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 놀이 10가지 중 1993년 교육부에서 개발한 ‘유아 전통놀이 교육활동 지도자료’에 포함된 옻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구슬치기, 연날리기, 비석치기 등은 현재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게 조정되어 자료집에 제시된 놀이 방법에 따라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행해지고 있었으며, 대개의 경우 이를 개조, 개량된 놀이 방법들이 가정에서의 놀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딱지치기, 공기놀이, 줄넘기, 깨금발싸움의 경우에도 유아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놀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추어 놀이 방법을 스스로 개조·개량하여 실시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 속에 이들 놀이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음은 현재 유아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유아 전통놀이 방법을 10가지 연구대상 놀이를 중심으로 조사·정리한 것이다.

옻놀이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즐겼던 옻놀이는 처음에는 정초에 농사의 흥풍(凶豊)을 점치는 놀이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순수한 오락을 위한 놀이로 변모되어 행해지고 있으며, 옻가락을 던져 나온 수만큼 놀이판 위에서 말을 움직여 승부를 가리는 놀이다(고려대학교, 1980; 손인수, 1991).

그러나 재래식 옻놀이의 놀이 방법은 유아의 발달 수준에 비해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교육부(1993)에서 제시한 옻놀이 활동자료를 활용하여 어린 유아에게는

윷가락대신 주사위에 도, 개, 결, 윷, 모를 상징하는 동물을 그려 넣어 사용하고 있으며, 윷놀이 판도 유아의 발달적 특징에 맞게 단순한 길로 바꾸거나 유아에게 익숙한 판게임(board game)의 놀이판과 유사하게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래식 윷놀이를 제시할 때에도 처음에도 4개의 말을 다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각 팀에서 말을 한 개씩 가지고 놀이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어느 정도 놀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여러 개의 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정에서 윷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재래식 놀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아들과 어른들이 섞여 한 팀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있으므로 윷가락을 던져 나온 수를 계산하거나 윷놀이 판에서 말을 움직일 때 유아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깨금발싸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둘로 편을 나누어 도구 없이 간단히 겨루기를 즐기는 놀이인 깨금발싸움은 한 쪽 발꿈치나 바지자락을 손으로 잡은 채 다른 한쪽 발로만 균형을 잡고서 무릎이나 몸으로 상대방을 밀어 쓰러뜨리거나 다리를 잡은 손은 풀게 하는 놀이이다. 특별한 도구 없이 간단히 할 수 있는 놀이이므로 유치원에서 실내·외 게임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운동회 같은 유치원 행사때에도 많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아인 경우에는 다리를 앞으로 올려 잡고 여아인 경우에는 다리를 뒤로 돌려 잡는 경우가 많다.

딱지치기

종이를 사각형으로 단단하게 포개 접어 만든 딱지로 다른 사람의 딱지를 쳐서 뒤집는 놀이인 딱지치기는 그 유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반 대중이 종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유아들은 우유팩과 같은 딱딱한 종이를 이용해 딱지를 만들거나 상품화된 그림딱지를 이용하여 놀이를 하는데, 놀이 방법에는 뒤집기, 불여먹기, 옆치기, 바람으로 넘기기, 원 밖으로 쳐내기, 입으로 불기, 침발라 넘기기, 벽치기 등이 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딱지를 높게 쌓아 놓고 위에서 쳐서 뒤집어진 딱지를 가져가는 ‘아파트치기’라는 놀이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줄넘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새끼줄을 이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줄넘기에는 짧은 줄넘기와 긴 줄넘기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줄넘기 모두가 유아의 수준에는 너무 어려워 놀이 방법을 변형시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짧은 줄넘기의 경우에는 양손에 하나씩 짧은 줄을 쥐고 돌리면서 뛰거나, 줄 끝을 양손에 쥐고 돌려 발 앞에 줄을 놓은 다음 뛰어 넘고 다시 앞으로 줄을 돌려 넘기는 방법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긴 줄넘기의 경우 ‘꼬마야 꼬마야’ 노래를 부르면서 노랫말에 나오는 지시대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유아들이 어려워 할 경우에는 양쪽에서 두 사람이 줄 끝을 잡고 땅에 대고 흔들면 유아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줄 끝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한 사람이 제자리 돌기를 하면서 줄을 돌리면 유아들이 줄에 걸리지 않도록 뛰어 넘는 놀이 방법을 행하고 있다.

공기놀이

다섯 개의 작은 돌을 가지고 땅바닥이나 방 또는 마루 위에서 손으로 받고 노는 공기놀이는 경북지방에서는 짜게받기, 경남지방에서는 살구, 전

남지방에서는 닷짝걸이, 서도지방에서는 좌돌리기, 조개질, 좌질, 조아질 등으로 불렸던 놀이이다(고려대학교, 1980; 심우성, 1996). 지역에 따라 조금씩 놀이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유아의 경우 다섯알 공기놀이 자체를 매우 어려워하여 자신들의 수준에 맞추어 양손의 집게손가락을 모아 공기를 줍는 코끼리 공기, 던진 공기알을 받지 않으며 하는 바보 공기(벙어리 공기, 거지 공기, 또는 명청이 공기라고도 불린다), 손등에 공기 한 알을 옮겨놓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바닥의 공기알을 집어 옮리는 애기 공기, 오른손으로 던진 공기알을 원손으로 받으며 하는 문디 공기를 주로 하고 있다.

제기차기

엽전이나 구멍 뚫린 쇠불이에 창호지를 감거나 닭털을 꽂아 만든 제기를 발로 차고 노는 놀이인 제기차기는 지역에 따라 놀이 방법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 외발 차기의 경우 맨제기, 땅강아지, 땅지기 등의 명칭이 있으며, 발들고 차기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개척구, 혈랭이, 들지기, 멀떨이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두발로 번갈아 가며 제기를 차올리는 경우에는 쌍발제기, 양발지기, 또는 어지자지 등으로 불린다. 이 밖에도 발등으로 제기를 차는 발등차기, 무릎차기, 이마로 차기, 키를 넘겨 옮겨 차는 키지기, 차올린 제기를 입으로 물었다가 다시 차고 다시 무는 물지기, 차올린 제기를 머리에 얹었다가 떨어뜨려 다시 차는 언지기,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제기를 던져주는 종들이기 등의 다양한 놀이 방법이 있다(고려대학교, 1980; 심우성, 1996).

그러나 유아에게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기차기의 방법이 너무 어려우므로 유치원에서는 교육부(1993)에서 제시한 놀이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고무줄이나 끈에 제기를 매달아 이를 나

무나 철봉에 걸어 놓고 유아들이 자신의 발 높이에 맞추어 끈의 길이를 조정한 다음 제기를 차거나, 제기를 매달아 놓은 나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차는 방법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책받침, 책 또는 손바닥으로 제기를 위로 치며 노는 방법도 많이 실시되고 있다. 가정에서 제기차기를 하는 경우 유아들은 손 위 형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차기 하는 것을 주로 구경하면서 외발 차기나 발들고 차기 정도를 흥내낸다고 한다.

팽이치기

넓은 뜰이나 한길, 또는 방안이나 얼음판 위에서 팽이를 돌리고 노는 팽이치기는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매우 다양한 놀이로서, 서울, 경기, 충청지방에서는 팽이, 경남지방에서는 뻣이, 경북지방에서는 평당, 전남지방에서는 뻣돌이, 전북지방에서는 뻣이, 제주도에서는 도래기로 불렸다(고려대학교, 1980; 심우성, 1996). 그러나 현재는 모든 지방에서 팽이치기로 이름이 통일되었으며, 팽이의 종류도 예전에는 팽이채로 돌리는 나무팽이, 위아래가 뾰족하게 되어있는 활뻥돌이, 몸통이 육각으로 되어있는 모팽이, 팽이를 조그맣게 만들어 중심부에 심봉을 박아 집게손가락과 엄지로 돌리는 뻣오리, 상수리나무 열매로 만든 상수리팽이 등 매우 다양하였으나, 현재는 재래식 팽이에서 발달된 긴 끈으로 감아 돌리는 상품화된 팽이가 거의 모든 지역의 유아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팽이치기의 방법으로는 오래 돌리기, 팽이싸움, 멀리치기, 빨리 돌아오기, 부딪쳐 돌아오기, 찌개 돌리기, 옆치기 돌리기, 손바닥에 올리기, 돌고 있는 팽이 밑으로 팽이채 통과시키기 등 매우 다양하지만, 유아들은 누가 팽이를 오래 돌리는지를 가리는 오래 돌리기를 주로 하고 있다.

구슬치기

일명 다마치기라고도 불리고 있어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구슬치기는 상품화되어 있는 원형의 단단한 유리구슬로 놀이를 한다. 구슬놀이는 크게 구슬치기와 훌짝놀이로 나뉘어지는데, 현재 유아들이 주로 하는 구슬놀이는 그어 놓은 선에 구슬 가까이 굴리기(선닿기), 원이나 삼각형 안에 놓여 있는 구슬 맞추어 갖기, 위에서 구슬을 떨어뜨려 튕겨나가는 구슬 갖기, 상대편 구슬 맞추기, 구슬을 벽에 부딪혀 멀리 보내기, 구멍에 구슬 넣기 등이다. 구멍에 구슬 넣기를 할 경우에 유아들은 여러 개의 구멍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정해진 구멍 순서에 따라 구슬을 넣도록 하고 있는데 각 구멍마다 이름을 붙여 주기도 하며, 구멍 대신 상자를 옆으로 뉘여 놓은 다음 상자 안으로 구슬을 굴려 넣는 놀이를 하기도 한다.

연날리기

음력 12월 중순경부터 시작하여 정초에 성행하다가 정월 대보름날 밤에 액막이연을 날리는 것으로 끝을 맺는 놀이였던 연날리기는 오락적인 측면과 민속신앙적인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민속신앙적 측면을 나타내는 액막이 연날리기의 모습은 거의 모든 지방에서 사라진 것 같으며, 오락적인 측면이 강조된 놀이 형태인 연싸움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고려대학교, 1980; 손인수, 1991; 심우성, 1996).

현재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연날리기를 할 경우 자신이 직접 만든 연을 하늘에 날려 보는 활동을 주로 하며, 가정에서는 상품화된 연을 사서 부모들이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들판이나 강변에서 주로 연날리를 하고 있으며, 연싸움은 너무 어려워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석치기

서로 합의하여 그어 놓은 선 위에 손바닥만한 돌을 세워 놓고 이를 맞추어 넘어지게 하는 놀이인 비석치기는 지역에 따라 놀이 방법과 이에 대한 명칭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유아들의 경우 손으로 던져 맞추기, 발로 차서 맞추기, 발등, 어깨, 배, 머리, 등위에 얹어 놓은 돌로 겨냥하여 맞추기, 겨드랑이, 무릎, 턱과 목, 두 발 사이에 돌을 끼고 걸어가 맞추기 등의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돌을 사용하여 비석치기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할뿐만 아니라 요즈음에는 비석치기에 적합한 돌이 주변에 흔치 않으므로, 유치원에서 비석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돌보다는 종이불록을 사용하여 실내 · 외놀이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들과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전통놀이에 대해 갖는 관심과 이를 교육과정에 실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현재 유아들에 의해 즐겨 행해지고 있는 전통놀이는 무엇이며 이를 놀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유아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놀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유아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연구대상 교사 모두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통놀이를 관련 단원을 전개 할 때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과 전통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교사들은 유아 전통놀이와 관련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재교육의 방법으로 방학 중 일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유아 전통놀이의 유래, 특징, 교육과정에의 적용방법에 대한 이론강의와 실제로 전통놀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고 이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워크샵이 병행되는 것을 원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유아 전통놀이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 전통놀이와 관련된 이론 및 실제 실행 방법에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혼직 교사를 위한 자격 연수 프로그램이나 일반 연수 프로그램에 유아 전통놀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유아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유아 전통놀이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져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기간동안 이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 전통놀이와 관련된 이론강의와 워크샵을 병행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편리한 기간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서 유아를 위한 전통놀이로 선정되어진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구슬치기, 연날리기, 비석치기, 줄넘기, 깨금발싸움 등 10가지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전통놀이 실행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유아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가장 많

이 행해지고 있는 전통놀이는 가정과 유치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윷놀이였으며, 그 다음은 깨금발싸움, 딱지치기, 줄넘기, 공기놀이 등의 순이었다.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유치원에서보다는 가정(집 또는 동네)에서 전통놀이에 더 자주 참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떤 특정한 때보다는 평소에 ‘하고 싶을 때’ 전통놀이를 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들에게 전통놀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아가 전통놀이에 흥미를 갖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평소에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도구 없이 할 수 있거나 현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를 많이 발굴하고 이를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유아의 가정에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셋째, 현재 유아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전통놀이의 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놀이 방법과는 다르게 행해지고 있으나, 놀이 방법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 놀이 10가지 중 교육부 자료에 포함된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구슬치기, 연날리기, 비석치기 등은 자료집에 제시된 놀이 방법이 실제 놀이 상황에서 거의 그대로 모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었으며, 딱지치기, 공기놀이, 줄넘기, 깨금발싸움의 경우에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놀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유아들이 자신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추어 놀이 방법을 스스로 개조·개량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들이 전통놀이를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옥승(1997)이 제시한 것처럼 전통놀이를 단순히 보존해야 할 하나의 옛 문화의 자취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문화로 인식함으로써, 유아 전통놀이를 현재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는 문화적 적용성을 가진 형태로 변화·발전시켜 제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위의 결과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자료들이 교육현장에서 과급효과가 무척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교육부에서 유아 전통놀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유아의 삶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면서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형태로 유아 전통놀이를 변화·발전시켜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유아 전통놀이의 확산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유아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유아 전통놀이의 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연구자가 놀이현장에서 유아들을 직접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이나 놀이현장에서 관찰한 것을 기초로 질문지에 응답한 것을 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편저). (1980). *한국 민속 대관*. 서울: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 교육부(1993). *유아 전통놀이 교육활동 지도자료*. 서울: 교육부.
- 김경희(1986). 전통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풍(1996). *민속놀이와 축제. 민속학회(편),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pp. 47-108). 서울: 집문당.
- 손인수(1991). *한국인의 교육세시풍속*. 서울: 문음사.
- 심우성(1996). *우리나라 민속놀이*. 서울: 동문선.
- 심우성(1997). 민속놀이의 이해. *놀이(놀이와 문화)*, 한국어린이육영회 연수원 전문가 연수 자료집, pp. 23-30.
- 양옥승(1997). *놀이와 문화. 놀이(놀이와 문화)*, 한국어린이육영회 연수원 전문가 연수 자료집, pp. 5-22.
- 유안진(1981). *한국 고유의 아동놀이*. 서울: 정민사.
- 이기현(1987).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에 관한 연구. *어린이 연구(대구대학교 사범대학)*, 23, 9-27.
- 이은화(1989). 전통놀이의 유아교육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